

광명소방서, 실전형 긴급구조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

복합건축물 화재 및 다수사상자 발생을 가정한 “無 각본” 긴급구조 훈련 실시

기사입력시간 : 2024/04/11 [16:44:00]

오효석 기자



[경기IN=오효석 기자] 광명소방서는 11일 대형화재 등 재난 현장의 효율적 초기 대응을 위한 '2024년 1분기 긴급구조 불시 및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명소방서에서는 2024년 현장에서 빠르게 작동하는 견고한 대응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재난에서의 조기 수습과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광명소방서 훈련탑에서 복합건축물 대형화재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을 주제로 無 각본으로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시나리오 없이 불시에 진행됐다.

훈련 목표는 재난 상황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점진적 확대로 ▲지휘권의 확립과 자원의 동원·관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임시의료소 설치·운영·관리 등 다수사상자 대응 ▲재난의 상황분석, 다수사상자 관리 등 실전형 훈련에 대하여 평가 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박평재 소방서장은 “좀 더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대형 재난에 맞서기 위하여 無 각본 실전형 훈련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방향 도출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